

“짙어진 녹음에 꽃밭까지...남도에서 인생 사진을”

전남도 6월 추천 관광지

‘엄마 프사 바꿔드리기’ MZ 트렌드 반영
관광제림·윤제림·세랑제·작천 부흥마을
‘사진 명소’ 4곳 특별한 ‘추억 쌓기’ 제력

전남도가 최근 MZ 세대의 ‘엄마 카카오톡 프사(프로필 사진) 바꿔드리기’ 트렌드를 반영, 사진 남기기 좋은 명소로 담양 관광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천 부흥마을, 화순 세랑제 등 4곳을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담양관광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한 모습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울창하게 자란 팽나무, 뽕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 숲길을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싱그러운 햇살 아래에서 부모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보성 윤제림은 1964년부터 기근 민간정원이자.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전남도가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인 담양 관광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천 부흥마을, 화순 세랑제 등 4곳을 6월의 여행지로 추천했다. 이는 MZ 세대의 트렌드 자리잡은 ‘엄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꿔드리기’에 착안한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화순 세랑제, 보성 윤제림 전경.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그루가 만개하는데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화사한 수국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숲속야영장(2개소), 숲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8동), 단독 숙박시설(6동)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세랑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뽕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전남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시엔엔(CNN) ‘한국에서 꼭 봐야할 5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진 작천 부흥마을은 6월이 되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곳에서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과 꽃 모두 관광 상품과 식재용으로 활용되는 강진군의 특산물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 길을 걷는 듯한 정취가 느껴진다.

마을 주민이 직접 가꾼 사스타데이지, 나비바

늘꽃 등 이국적 꽃과 포토존, 휴식 공간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농촌 마을의 정서를 느끼고 꽃 사진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다.

심우정 관광과장은 “전남은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양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을 남기면서 부모님과 MZ 자녀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영암서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 가족형 축제로 열린다

내일부터 이틀간 국제자동차경주장
카드·드리프트 등 체험 콘텐츠 무료

전남도가 지원하고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orea International Circuit-KIC) 관리 운영을 맡은 (주)코리아모빌리티그룹(KMG)이 주최하는 ‘2025 KIC-컵(CUP) 투어링카 레이스’ 개막전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가족형 복합문화축제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문화행사 브랜드 ‘MOTO JOY’를 처음 도입, 모터스포츠의 역동성과 감성을 동시

에 체험할 다채로운 콘텐츠를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는 코리아모빌리티그룹이 주최하는 대표 입문형 대회로 매년 5회 열린다.

참가자는 1천600cc 튜닝차량으로 진행되는 ‘KIC-스프린트’와 개인 최고 주행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타임트라이얼(Time Trial)’ 종목에서 경쟁에 나선다.

올해 시즌 개막전에는 총 6개 종목, 110대 차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모터사이클(400cc/1천cc), 드리프트, 슈퍼UTV 타임어택 등 박진감

넘치는 주행 종목을 함께 펼쳐진다.

KMG는 경주장 민간 위탁 전환 첫 해를 맞아 단순한 속도와 경쟁의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활 스포츠문화 플랫폼’으로 재정립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MOTO JOY’ 브랜드를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 모터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람객의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는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행사 기간 운영되는 미니목장 ‘Kid Zoo’에서는 아이들이 양, 미니 말, 돼지, 염소, 기니피그, 앵무새 등을 직접 보고 만지는 교감형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 관람객은 보드퍼리와 함께하는 원반 던지기, 안전요원과 함께하는 2인승 카드 체험, 페이스 페인팅, 키다리 아저씨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통해 경주장이라는 공간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다.

블라이트 뱀, 뉴기니아 앵무새, 서틀랜드 쉽 등 특별한 동물과의 인종샷 체험은 SNS 공유를 통해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모든 체험 콘텐츠는 무료이며 일부 체험은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양시원 기자

광주소방,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2일 장성군 함동저수지 일원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13일까지 진행될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수중 구조장비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훈련에는 5개 소방서와 119특수대응단 구조대원 120여명이 참여했다.

소방헬기·구명보트 활용 인명구조, 스킨스쿠버·개인 구조 장비 숙달 훈련, 드론 활용 공중 수색, 수중 구조대상자 탐색 등 실전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통합 구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식 119대응과장은 “여름철은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경제청, 빛그린산단 내 지적기준점 135점 노란색 도색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빛그린국가산단단지 내 지적기준점(도근점) 135점에 대한 표지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청은 지난 4월부터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와 병행해 도색 작업을 추진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광주경제청은 지적측량 작업 때 현장에서 지적기준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등 지적기준점 표지의 시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도색된 표지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로고와 문구도 함께 표기해 시민들에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알리고 지적기준점에 대한 관심

과 보호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색 및 마킹 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지적기준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준점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사 34 주년을 축하합니다

**칙척만든 가루 쌀이 들어간
맛있는 음료와 베이커리 태산**





가루쌀이 들어간 빵 & 음료!!

쌀베이커리 태산
RICE BAKERY TAESAN

주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길 130-7

영업시간 | 매일 09:00 ~ 21:00 (20:30 라스트오더)

문의 | 070-4467-2515